

문화

■ '키스 해링' 개막 첫날 표정

“역시 키스 해링!”

살아 움직이는 듯한 표현 눈길 압도
원색의 현란한 색채 아이들도 즐거워



8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린 팝아트의 거장 '키스해링'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TV와 인터넷에서만 보던 키스 해링의 대표작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역시 거장의 숨결은 남달랐다.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압도하는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의 작품을 보며 즐거워했다. 원색의 물감을 쏟아부은 듯한 현란한 색감과 마치 만화 속 주인공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표현력은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키스 해링이 즐겨 그린 ‘빛나는 아이’와 ‘강아지’ 이미지는 아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지역 작가와 미술대

학 학생들도 전설적인 팝아트를 감상하기 위해 전시장 곳곳을 떠나지 못했다.
8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개막한 ‘키스 해링전’(2011년 2월27일까지)의 개막 첫날 풍경이다. 이날 오전부터 첫눈이 내리는 등 쌀쌀한 날씨에도, 서둘러 명작을 만나기 위한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상록전시관 정문에 설치된 키스 해링 작품 이미지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전시장 곳곳을 돌며 작품을 꼼

꼼히 감상했다.
특히 관람객들은 ‘남아프리카에 자유를’ ‘빛나는 아이’ ‘회상’ ‘침묵=죽음’ ‘아이콘’ ‘팝업’ 등 그의 대표작 15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즐거워 했다.
설치작가 손봉채씨는 “뉴욕 유학 시절,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그의 대표작이 모두 모여 감동적이고 평화와 자유를 사랑했던 그의 예술 철학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또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키스 해링의 작품과 실제 작업

모습을 담은 사진,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Drawing the Line’(30분) 등을 둘러보며 그의 작품 세계를 되짚어봤다.
또 키스 해링은 뉴욕 지하철 내부에 낙서화를 그렸는데, 이번 전시에는 당시 사진과 실제 뉴욕 지하철에 있는 낙서화 철 구조물을 본 따 전시장에 설치해 더욱 현장감 넘치는 감상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미술 전공 학생들에게 현장감 넘치는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또 학생들은 풍부한 작품 해설과

전문적인 지식을 담은 오디오 가이드와 도슨트들의 설명을 들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의 작품 이미지를 입힌 다양한 종류의 아트 상품도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회사원 서부광(36·광주시 북구 유동)씨는 “대부분 작품이 만화를 보는 듯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고, 색이 화려해 아이들도 즐거워했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성인 1만 원, 중·고생 8000원, 어린이 6000원.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62-613-5396.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오케스트라의 향연속으로~

13일 아시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시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일본의 가토 아츠시가 객원지휘 한다. 도쿄 프라임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도쿄 스키니미 윈드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가토 아츠시는 지난 8월 광주에서 아시아나인스트림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마스터클래스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공연은 로시니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으로 문을 열며 조선대 서영화 교수가 ‘베토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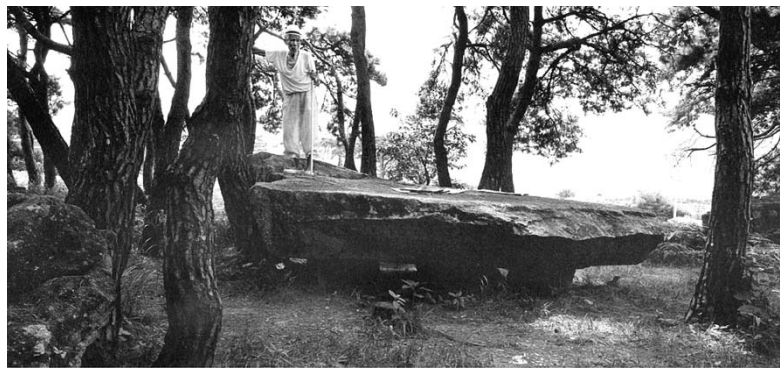
협주곡 5번 황제’ 1악장을 협연한다. 특히 눈에 띄는 곡은 민요 ‘아리랑’을 테마로 해 만든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곡 ‘아리랑 환상곡’으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피날레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이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설립한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특별기획연주회, 천원의 낭만 음악회 등 연간 약 40여회의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티켓 가격 2만 원, 1만원(예매 및 학생 50% 할인) 홈페이지 www.gasia.org.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독바우’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을까

10~16일 김영섭 사진전

사진작가 김영섭씨가 오는 10~16일 광주롯데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그는 ‘독바우’를 주제로 오랜 세월 남도 들녘을 지켜온 고인돌을 담은 사진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에는 기차길 옆, 논 한 가운데, 언덕 위, 소나무 숲 속 등 고인돌을 배경으로 한 갖가지 풍경들이

펼쳐진다.
고인돌은 누군가 그곳에 옮겨 놓았겠지만, 그의 사진 속에서는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처럼 주변 풍경과 어울려 묘한 울림을 준다.
경일대 사진영상학과를 나온 뒤 중앙대 사진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씨는 6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 현대 사진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 사진학회, 한국 미술협회 회원이며 순천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의 062-221-1808.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고인돌’

“옛 도청 앞 ‘콘서트 할레’ 맘 편히 오세요”

옛 전남도청 앞에 들어선 콘서트 할레(아시아 문화마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설치한 문화공간이다. 지난 9월부터 개관 기념전으로 이토이 그룹 전시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 공간은 웬지 일반 시민들이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장소로 여겨졌다.
현재 한창 진행중인 ‘인사이드 광주전’은 콘서트 할레가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서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에는 만화, 사진, 설치 미술,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명우·이조흠·장원석·홍원철 등 지역 젊은 작가가 4명이 초대됐다.
이들은 콘서트 할레 광주 디렉터인 톱 부채만과 크리스토프 프랭크가 선정한 작가들이다.
전시와 함께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마련됐다. 영화 상영과 오

- 인사이드 광주전 진행
- 10일 인디음악 콘서트
- 13일 희망나눔 콘서트
- 18일 광주야 베틀시장

픈 토크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0일 오후 8시에는 ‘GFN 인디음악콘서트와 BYO DJ 나이트’ 행사가 열린다.
광주영어FM방송(GFN)과 함께 진행하는 ‘GFN 스페셜 크리스마스 인디 음악 콘서트’가 열리며 작가가 이조흠씨와 DJ Smack 등이 참여하는 파티가 진행된다.
18일 오후 5시~밤 12시까지의 ‘광주야(夜) 베틀시장’도 열린다. 일반인들 뿐 아니라 아티스트들이 판매자로 참여하며 신나는 음악이 분위기를 띄우고 음료도 제공된

다. 베틀시장의 판매자로 참여하고 싶다면 estevan@thebling.co.kr로 신청하면 된다.
콘서트 할레는 다양한 단체의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13일 오후 7시에는 ‘2010 희망 나눔 콘서트’가 열린다.
BPW(전통직 여성)광주·무등클럽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신진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무대다.
비올라의 한혜원·김모슬씨를 비롯, 채송화·강하선(바이올린), 김황균(첼로), 이은영·이삭(클라리넷)씨 등이 출연하며 연주 레퍼토리는 등보르자의 ‘현악 4중주 작품번호 96’ 2악장, 바하의 ‘첼로 조곡 3번’, 포레의 ‘파반느’ 등이다.
또 가요리, 해금, 퍼커션 등으로 구성된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Fly to the moon’ 등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로 놀러가자

메가박스 12일까지 40여편 상영

2010 광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정국)가 8일 광주메가박스 M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GIF & 서포터즈: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지난 9년간의 영화제를 회고하고 새로운 도약과 전망을 찾기 위한 응원영화제 성격을 띠고 있다.
상영작품은 개막작인 노르웨이 벤트 해머 감독의 ‘오슬로의 이상한 밤’을 비롯 장·단편 40여편이다.
‘영 시네마’ 부문에서는 이응일 감독의 ‘불청객’, 후쿠시마 타쿠야 감독

의 ‘우리들의 짧은 영원’ 등이 상영된다.
또 알렉스 레네 감독의 ‘입술은 안돼요’, 상탈 아케빈 감독의 ‘간헐 여인’, 만다 쿠니토시 감독의 ‘언러브드’, 켈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등이 상영된다.
그밖에 일본 마사아 리이치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단편선과 ‘시민단편영화 스페셜’ 등이 관객들을 맞는다. 시 간표는 영화제 홈페이지(www.gi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상 수상자 선정

광주문인협회(회장 오덕렬)는 ‘제23회 광주문학상’ 수상자로 신동규(소설), 박주관(시), 서연정(시조), 송미심(수필)씨를, ‘광주문학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로 박관석(시), 탁현수(수필)씨를 각각 선정했다.
광주문협은 이와함께 공로상에 김

선식(예원출판사 대표)씨와 금응웅(대금연주단대나드리 대표)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9일 오후 6시 광주히딩크 호텔에서 ‘광주문학인의 밤’ 행사와 함께 열린다. 문의 062-227-081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Business & Employment', 'Food & Drink', 'Real Estate', etc.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ach.